

축산기술사 1호 탄생

천호부화장 김호섭 이사 합격

인터뷰 · 김용화 기자



합격소식을 전해 듣고 축하전화를 받으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김호섭이사.

주 산업은 그 기본이 농업을 떠날 수는 없지만 운영 성격상 1차산업에서 분리된 듯한 감이 없지는 않다.

생명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의 식량을 생산한다는 막중한 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책방향이나 국민들 사이에 그저 단순직업이라는 인식이 앞서 왔다는 것은 그만큼 축산업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증거

가 아닐 수 없다.

다행히 금년부터 정부에서 축산기사 및 축산기술사제도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축산인들의 지위향상은 물론 당당한 전문분야로써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축산에 새로운 수준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금년에 처음 실시된 축산기술사 시험에 응시한 김호섭이사(천호부화장)는 응시 1호, 축산기술사 1호

라는 기록을 만들어냈다.

김이사는 1947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67년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축산학과를 입학하면서 축산업계에 입문을 한 셈이다. 그 후 73년 8월 천호부화장에 입사하면서 닭과 함께 15년을 살아왔다. 현재 가족으로는 부인 장애숙여사(교사)와의 사이에 1남을 두고 있다.

합격소감을 직접 들어본다.

■ 축산기술사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합격소감을 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사자격 취득이라는 사실보다는 「축산기술사 1호」라는 점이 무엇보다 보람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시험준비에 흔히 났습니다. 약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직장생활을 고수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지 17년이 지났기 때문에 축산 전반에 걸친 이론공부에 가장 고전을 했습니다. 다행히 실무와 연관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일부 과목은 답안 작성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 축산기술사자격 검정제도를 실시하게 된 의의는 어디에 있다 고 보십니까?

우수한 자질의 기술인력을 국가가 선별하여 산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케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시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 축산기술사란 타 분야의 기술사와 같은 것이며, 시험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축산 기술사시험은 금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기술사 자격검정 종목은 기계, 금속, 건축, 설비, 통신, 항공, 전기, 전자, 환경관리, 교통 등 21개 분야가 있습니다. 대개 1년에 한번씩 시행되는데 매년 3월 하순에 원서접수를 하여 4월 하순에 필기시험을 거쳐 6월에 경력심사를 하며, 7월에 구두 면접시험을 치루고 있는데 이번이 31번째 시험이었습니다.

■ 현재 축산기술사제도에 대해 흥보가 잘 안된 상태여서 앞으로 이 시험에 응시할 사람들을 위해 응시 자격조건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사는 주로 산업체에서 활동해야 하므로 실무경력을 매우 중요시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응시자격요건은

첫째,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기술분야에서 7년이상 종사한 자

둘째, 동일 기술분야를 전공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당해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세째, 동일 기술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당해 기술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이면 누구

● 단지 축산기술사가 되었다는 기쁨보다 축산기술사 1호라는 점에 보람을 느끼고 있읍니다.
앞으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선구자적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

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의 과목과 출제유형 그리고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필기시험과목은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가축영양학, 가축번식학, 가축생리학, 축산경영학, 사료작물학, 초지학 등 8과목이며 출제유형은 모두 논술형으로 폭넓게 깊이있는 지식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필기시험 합격 판정은 전과목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한 과목이라도 60점 이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사료작물학과 초지학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아마 생소한 분야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교재 8권을 3번 정도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대학원(건국대학교 대학원 축산학과)에 진학하여 공부하다 우연히 12월에 정보를 얻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준비를 했기 때문에 고생을 더욱 많이 하였습니다.

■ 응시1호, 합격1호라는 영광을 안으셨는데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봅니다. 현재 업계에서도 지도자급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탄생하게 될 축산기술사의 활용과 기술사제도를 업계가 어떻게 활용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축산업에 종사하게 될 인력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었질 않습니까? 제 입장이긴 하지만 축산 기사가 배출되어 취업을 희망할 경우 채용에 결격이 없는 한 우선 채용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산업분야에서는 기사1급과 기술사자격 검정제도의 활용으로 우수한 기술수준의 향상을 기하며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사1급은 4년제 대학졸업 예정자가 취득할 수 있으므로 신입사원 채용시 자질 평가에 있어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해서 평가될 수 있으며, 기술사 검정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해야 자격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축산 분야에서도 잘만 활용되면 산업체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저 혼자만 합격을 했지만 명년에는 보다 많은 훌륭한 축산인들이 응시하여 합격해서 우리 업계도 기술사 검정제도의 활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양계 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기술사로서의 지위 향상은 물론 기술발전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양계산업의 대들보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